

웃 같아입은 우제길미술관...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다

건축가 승효상 설계 서석대 닮은 작품으로 재탄생
교육실·아틀리에·야외 공연장·아트샵·카페 갖춰
오늘 재개관 행사... '우제길 이전의 우제길' 전시도



Work 5-3A

무등산 품에 안겨 있는 우제길미술관이 서석대를 꼭 빼닮은 모습으로 웃을 같아입었다. 자유분방한 듯하면서도 단정하게 서있는 기품이 서석대 주상절리의 자태와 닮았다. 광주시 동구 운림동 미술관거리 초입에 있는 우제길미술관(관장 김차순)이 23일 오후 5시 '우제길미술관의 재탄생'을 주제로 재개관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2001년 4월 문을 연 우제길미술관은 본관 옆에 새로운 건물을 올리면서 15년 만에 전시실, 교육실, 아틀리에, 사무실, 야외 소공연장, 아트샵, 카페테리아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 태어났다.

재개관한 우제길미술관은 '빛의 작가' 우제길(74) 화백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승효상 건축가와의 만남으로 완성됐다. 승효상 건축가는 우제길 화백의 설치 작품 '서석대'를 모티프로 기존 우제길미술관을 하나의 미술 작품으로 재탄생시켰다.

재개관 행사에 앞서 22일 오전 찾아간 우제길미술관은 작은 공원 위에 하나의 조각 작품처럼 놓여 있었다. 특히 시시각각 위치를 바꾸는 태양이 온 종일 미술관의 하얀 벽면에 그림자로 '빛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다. '빛 그림'은 우 화백의 작품을 연상시키면서, '빛을

품은 미술관' '해가 지지않는 미술관' 등의 수식어가 제법 어울려보였다.

기존에 있던 미술관 본관 건물에는 빛을 받으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우 화백의 작업실, 지하 1층 상설전시장, 1층 기획전시장, 사무실, 다목적 교육실 등으로 공간이 새롭게 꾸며졌고, 신관 건물은 앞으로 카페테리아 겸 전시실로 사용될 예정이다.

미술관 내부는 승효상 건축가 특유의 공간 구성이 돋보였고, 세심하면서도 안정된 현대미가 흘렀다. 미술관 내외부는 이동 동선에 따라 교차하는 크고 작은 길을 연결하는 통로가 놓여 있어 안과 밖, 미술관과 공원의 경계가 무의미한 것처럼 다가왔다. 관람객들에게 문턱을 낮추고, 소통하기 위한 배려처럼 느껴졌다. 내부 실내 공간 안에 빛을 자유자재로 활용한 세심한 배려도 인상적이었다. 각기 다른 형태의 사각형 장문은 우 화백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들을 연상시키기도 했다.

벽면의 '빛 그림'을 보며 미술관 주변을 걷는 재미도 여간 아니었다. 잔디와 나무데크가 미술관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소나무 등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선물하기도 했다. 옥외 전시장, 소공연장이 함께 있어 앞으로 열린 다양한 문화공연이 기대되기도 했다.

특히 공연장을 중심으로 연결된 바닥패턴, 한적한 시골길의 아름다움을 은유적으로 담아낸 조경디자인이 우 화백의 '서석대' '자화경' 등 작품과 어울려 또 다른 그림을 만들어냈다.

우제길미술관은 우 화백의 아내인 김차순(62) 관장의 뜻과 의지로 만들어진 하나의 작품이다. 25년 전부터 남편의 이름을 딴 미술관을 꿈에 그려왔던 김차순 관장은 터를 닦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우제길미술관을 하나의 브랜드화된 건축물로 완성했다. 그리고 이번 재개관을 통해 그 꿈을 완성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제



'빛의 화가' 우제길 화백과 승효상 건축가가 만든 우제길미술관이 23일 재개관 행사를 진행한다. 우제길 화백(오른쪽)과 아내 김차순 관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게는 우제길미술관이 하나의 꿈이었어요. 재개관까지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공사기간만 3년이 걸렸어요.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건축은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어도 설계도는 물론 창문 하나, 벽돌 하나까지 정성을 다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죠. 우제길 작가의 미술관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젊은 작가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김차순 관장)

김 관장의 이 같은 노력은 재개관 이전부터 빛을 보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 아쿠공대 건축학과 학생들이 미술관을 견학하고 가는 등 전국에서 찾아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작가와 건축가가 만나 만든

모범사례로 알려져서다.

아내가 미술관의 하드웨어를 완성했다면, 남편은 미술관 콘텐츠를 채웠다. 우 화백 자신의 작품은 물론 그가 어린시절부터 모아온 방대한 양의 아카이브 자료들이 그것이다. 아카이브에는 각종 전시 자료, 팸플릿, 일기장, 육필 편지 등 수만 점의 자료들이 포함돼 있다. 우 화백은 "이 아카이브들이 문화도시 광주의 귀중한 자료로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제길미술관은 재개관을 기념해 오는 7월 22일까지 '우제길 이전의 우제길'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에는 1960년 우 화백이 고등학생 때 그린 추상회화부터 1976년까지 작업했던 단색화 등 작품 20여 점이 전

시된다. 우 화백이 '빛의 화가'로 태어날 수 있는 뿌리가 됐던 작품들이다. 특히 캔버스 위 물감을 나이프로 긁어서 완성한 단색화 작품들과 나무를 파내고 불로 그을려 완성한 작품이 시선을 끈다.

김 관장은 "작가들에게는 창작의 기쁨을 안겨주고, 시민들에게는 문화의 향기를 퍼뜨리고, 건축학도들에게는 배움의 장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태어난 우 화백은 광주 서중과 광주사범학교를 거쳐 광주대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했다. 제1회 광주비엔날레에서 최고 인기작가상을 수상했으며 81차례의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062-224-660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初八日'

시대와 소통한 불교미술 40년

고현 교수 정년퇴임전... 26일까지 조선대 미술관

평생 '불교미술 현대화'를 화두로 작업해온 고현 조선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가 오는 8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고별 전시회를 연다. 오는 26일까지 조선대 미술관에서 열리는 정년퇴임 고별전에서는 고 교수가 40여 년 동안 작업해 온 대표 작품 40여 점을 만날 수 있

다. 그의 작품은 형태와 색채에서 전통적 불화와는 달리 파격적인 면을 보이면서도 전통적인 불교 특유의 정서와 사상을 담고 있다. 조장기 전통적인 오방색을 벗어나 강렬하고 화려한 현대적 감각의 색채를 통해 수행자의 청정한 정신세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해온

그는 2000년대 이후 단순하고 절제된 색채나 여백으로 불교의 침묵과 적요를 담기 시작했다. 고 교수는 대전 연화사와 광주 선덕사 등 사찰 탱화 작업도 해왔다. 5년간 작업한 경기도 화성 자제정사의 '범화연해도'(가로 42m, 세로 2m)는 국내에서 가장 큰 작품으로 손꼽힌다.

특히 그는 지난 1981년 불 범정 스님과 불일암에서 맺은 인연으로 '맑고 향기롭게' 연꽃 스티커(캐릭터)를 도안했고, 현재 맑고 향기롭게 광주 모임 회장을 맡아 이끌고 있다. 미술평론가 김승환 조선대 교수는 "고 교

수는 다양한 매체와 소재,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조형언어를 통해 불교미술이 동시대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었다"라고 평했다.

앞서 22일 오후 5시30분 열린 오프닝에서는 '불교미술 현대화 40년'과 '불교디자인 개척 40년' 출판기념회도 함께 진행됐다.

고 교수는 장흥 출신으로 조선대 미술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0년부터 모교에서 재직해 왔다.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전국경제인연합회장상, 불교행원문화재단 공로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230-773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이태리가구 **명품소파** **더롭침대** **가구빌딩**

홍스제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신상품 매주 입고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